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22호 2013. 1. 29.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고흥길/편집인:정순화/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전화:788-2371~6. 788-3081~6. FAX:788-3571

이사장 신년사



사랑하는 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이사장 이경식입니다.

계사년 새해가 밝아오고 벌써 1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눈이 아주 많이 와서 올해는 꽤나 풍요로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우리 속기협회 회원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시작은 잘 하셨습니까? 지금쯤이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계획하셨던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볼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뺨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동양사상에서는 영적인 존재이고 살아가면서 몇 번의 허물을 벗는 과정

을 거치기 때문에 변화의 의미가 있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기협회도 올해는 집행부가 바뀌는 해이기도 해서 왠지 계사년 한 해가 우리 협회에도 뜻 깊게 다가오는 해가 될 듯합니다.

작년 세미나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속에서 안면도에서 잘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속기경기대회도 있었고,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에도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좀 더 특별한 사업이 있었다면 작년 연말에 속기무료강습이 있었었습니다. 속기의 저변 확대와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 협회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였는데 상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부에서는 우리 선배님들의 글과 연구논문, 언론에 나간 속기에 대한 글을 모은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매년 별다른 변화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일을 발굴해 나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2012년 인터스테노에 참가했던 팀이 2016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한국 개최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개최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우리 한국 속기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인터스테노에 처음 참가했던 것이 1983년도부터였는데 계속 참가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우리 노력의 결실인 것 같아서 뿌듯함을 느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나 싶은 4년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뭔가 부족하고 아쉬움만 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가지 못 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겠지요. 기록문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속기를 좀 더 알리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어도 그 마음만큼 실천이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부담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기 임원진께 좀 더 가기 편한 길로 인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으나 항상 우리 협회 회원들의 성원으로 조금씩 발전하고 변화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담아 2013년 마지막 이사장 인사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이사장 이경식

이사진 신년사

총무·재정
이사
김 덕 진

여러분 모두 2012년 새해에는 용이 하늘을 향해 웅비하듯이 힘찬 도약을 하는 중요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면 용띠 해에는 좋은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88서울올림픽도 용띠 해에 개최되었고, 희망의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개막하며 IMF 경제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도 바로 용띠 해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가 그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온라인 세대에 태어난 젊은 층)'와 '디지털 이주자(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이전 세대)'들이 반목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속기 분야에도 머지않아 거센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 열정이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함께 고민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난다는 비룡승운(飛龍乘雲)이라는 말처럼 회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업·회원이사를 맡게 된 간찬기입니다.

제작년 말인가 전임 손숙자 사업이사께서 외국유학을 떠나시면서 공백이 된 사업이사 자리를 이사장님께서 잠시 맡아 달라 하셔서, 2012년 한 해 동안 안면도에서의 세미나 그리고 속기무료강습 등 사업부의 일을 진행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된 일이라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일을 했습니다. 마는 다행히 정향인 사업부장 등 여러 회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큰 실수 없이 사업을 끝마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사업이사를 맡게 돼서 새로운 4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속기협회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끝마치시고 물러나시는 이경식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손재욱 이사장님을 잘 모시고 대한속기협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이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회원
이사
간 찬 기

홍보이사
정 순 화

안녕하세요, 홍보이사 정순화입니다.

처음 홍보이사라는 직책을 맡았을 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았는데 어느새 4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속기계와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항상 다음에는 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마지막 소식지를 발간하고 임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속기인 관련 자료들을 한 데 모아 자료집을 만들어 놓겠다는 이경식 이사장님과 홍기표 선생님의 강력한 의지로 「의회속기록 관련 자료선집」을 발간하였는데 한 권으로 하기에는 자료들이 많아서 이



번에 한 권을 발간하고 다음에 나머지 한 권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책이지만 발간에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고생하신 박정현 부장 이하 속기계 편집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합니다.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어찌 생각하면 4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다. 2009년 2월 협회 국제이사를 맡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사장님께서 첫 임무를 주셨다. 7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인터스테노 총회 속기경기대회 참가를 검토해 보라는 것이었다. 무작정 인터스테노 홈페이지를 뒤지며 메일을 보낼 때는 막막한 마음뿐이었지만 2009년, 2011년 2회 연속 참가함으로써(총회 속기경기대회는 2년마다 열린다) 경기대회 참가도 정착되어 가고 2011년에는 훌륭한 성적으로 입상까지 한 것은 기대 이상의 큰 열매이고 보람으로 기억된다.

4년간 국제부에서 함께 뛰어준 이해정, 주정순, 최영림 씨, 또 그간 국제부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제이사
최은정**

자격심사위원장 임기를 마치며

인사말을 쓰자니 얼핏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라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 생각났습니다.

화살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야말로 쏠살같이 지나간 지난 4년, 화살이야 과녁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자격이사로서의 내게 과녁이라는 게 있거나 했는지…… 자괴감에 입맛이 쓰네요.

그러나 지난 4년, 참 보람 있었습니다.

2009년 북경 인터스테노 국제속기경기대회에 처녀출전한 후 2011년 제45회 인터스테노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수상했을 때의 환호, 감격…… 대한속기협회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러 갈 길 중 분명한 또 하나의 길이 생겼습니다.
2016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개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타조사를 위한 준비팀이 꾸려질 것입니다.
그때 안 되면 그다음에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해낼까요?

**자격심사
연구위원장
정란**



박우찬



김진주



예산해

<질문>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3. 당신의 이상형은?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6. 국회 합격 소감은?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9. 선배님들께 한마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 박우찬

1. ‘소나무’ 늘 한결같고 든직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2. 운동을 좋아해서 구기운동이나 자전거 타기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3.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4. 졸업 후 다짜고짜 사회경험을 쌓다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냥 막연한 직장인이 아닌 내가 잘 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와중에 TV를 통해 국회 속기사에 대해 알게 되어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반반 (합격에 대한 기쁨 반, 업무에 대한 긴장 반입니다.)
7. 저희 집 나이 많은 청소기와 죽어가는 전자레인지를 바꾸겠습니다.
8. 부모님과 국회 내 식당에서 식사 해 보고 싶습니다.
9.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10. 매사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잘 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새내기들에게 묻다!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3. 당신의 이상형은?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

● 김진주

1. 저는 제 자신을 ‘양파’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보통 양파를 사람에 비유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양파라고 정의하는데는 타인의 눈에 비친 저의 외양과 순도 100%의 ‘리얼 김진주’는 제법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첫 대면에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첫인상에 대한 평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차가워 보인다, 친해지기 힘들 것 같더라는 말들로 스쳐가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겪어본 사람들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지언정) 정도 많고 참 따뜻한 사람이다.” 차가워 보이지만 실상은 차갑지 않고,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 외로 참 다루기 쉬운(?) 사람입니다. 벗겨도 벗겨도 계속 뽀뽀 나오는 저의 매력을 선배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 저는 농구장에 가서 농구경기를 관람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역동적인 선수들의 움직임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장내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응원구호에 입을 맞추며 목혀뒀던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3. 일단은 잘 생겼으면 좋겠고요(^^;) 차분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운동도 잘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관이 저와 일치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면 포인트입니다.
4.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제 자신을 보게 된 순간들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릴 때였습니다. 잘 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던, 그냥 그저 그런 사람에서 키보드를 두드리면 순간만큼은 제가 또래 중 ‘최고’, 전교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컴퓨터 속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 바로 속기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속기를 알게 된 다음 날, 바로 속기학원에 등록하고, 일사천리로 키보드를 구입해 연습하

6. 국회 합격 소감은?
7. 첫 월급을 받으면 하고 싶은 일은?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9. 선배님들께 한마디!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 예산해

1. ‘이인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인자는 언젠가 자신도 나태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인자는 일인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 일인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이인자가 되고 싶은 것이 제 모습이자 닮고 싶은 이유입니다.
2. 운동입니다. 저는 2011년 국회시험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등록한 것이 헬스클럽이었습니다.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등록을 한 이유였지만 보기 좋은 몸을 보면 한 없이 부러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꾸준히 운동을 해서 남부럽지 않은 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3. 저의 어머니와 같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주위 사람들로 부터 좋은 평을 듣습니다.
4. 군대를 전역 후 진로를 고민하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인 텔레비전에서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타차치는 것에 관심이 많던 터라 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속기를 배우기 전에 롯데마트에서 한 1년 좀 넘게 정육점 코너에서 고기를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사를 하면서 고객에게 사계끔하는 여러 가지 멘트 등은 소소한 재미와 참 기분 좋았습니다. 지금 아마 속기사가 안 되었다면 저만의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어딘가에서 멘트를 날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단지, 주위에서 축하메시지나 말을 들을 때면 ‘내가 합격하기는 했구나!’ 정도 일뿐이지만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은 정말로 가슴 벅칩니다.



고, 그리고 얼마 안 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국회 속기직을 준비하는 등 매 순간마다 저에게 비전과 꿈을 제시해준 속기가 지금은 참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5.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동사무소나 도청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공무원이 너무나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6. 제일 우선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분이 매우 좋았고 또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께 효도다운 효도를 했다는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막중한 책임감이 엄습하면서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제 인생의 새로운 2막이 올라갔기 때문이겠지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발을 내딛고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만 새로움은 나태해진 저에게 신선한 긴장감을 불어넣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한편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7. 제 용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모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부모님께 처음으로 든든한 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8. ‘직장인 코스프레’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말인 즉, 점심시간에 공무원증을 목에 건 채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바쁜 직장인의 모습으로 여의도 횡단보도를 건너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TV나 친구들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시험에 합격하면 꼭 저것을 해보리라고 굳게 다짐했던 모습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꼭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9. 선배님들! 제가 크리스천이라서 술을 한 잔도 먹지를 못 한답니다. 나중에 회식을 할 기회가 생겼을 때 술도 안 먹고 분위기도 못 맞춘다고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T.T 제가 비록 술은 먹지 못하지만 선배님들께 진솔하고 착한 막내 후배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부족한 부분은 선배님들께 여쭙보면서 부지런히 채워나가겠습니다. 또 “김진주 정말 성실하다.”라는 말을 선배님들께 들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해내겠습니다. 겸손해지겠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7. 아버지께서 노래듣는 것을 좋아하셔서 매주 월요일마다 ‘가요무대’를 시청하곤 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00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께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미자 디너쇼’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 그런 근사한 곳에서 부모님께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8. 1년 동안은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새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업무적인 면이나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없이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 소화해 내고 싶은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9. 선배님!!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것도 많은 신입 속기사 예산해입니다. 그래서 많이 혼내주세요! 그리고 많이 알려주세요!
 또한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맘껏 시켜주시고, 맘껏 불러주세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 한 몸 배우는 자세로 항상 달려가겠습니다!!
10. 수험기간 5년 동안 제가 키운 것은 속기실력보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노력과 인내심뿐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국회공직생활에 저의 부족한 부분은 이런 노력과 인내심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이 돼서도 동료 선배님들로부터 ‘인재’와 ‘엔도르핀’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소식

■ 제217차 이사회는 2012년 4월 13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2012 속기학술세미나 개최의 건을 상정하여 사업이사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 후 2012년 5월 15 ~ 16일,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소재 리솜오션캐슬리조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속기학술세미나 강사로 제1주제에 김대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제2주제에 김주성 참나무비전학교장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2년도 인터스테노 준비의 건을 상정하여 국제이사로부터 2012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 예정이며 참가인원(3명) 선정은 의정기록 1·2과장과 국제이사, 총무이사, 김점동 이사가 추후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홍보발간사업의 건을 상정하여 홍보부장으로부터 속기계·사례집 발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5월 세미나 일정에 맞추어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 인쇄부수를 700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4항 속기경기대회 개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부터 제20회 전국속기경기대회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2년 6월 1일 10시 국회 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리얼타임 방식으로 실시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점동 이사로부터 국제경기대회 방식인 리얼타임과 스피치캡처링 두 가지 종목 추진 건의가 있었으나 총회가 있는 내년부터 두 종목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5항 속기무원강습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사업이사로부터 7~8월 중 실시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점동 이사로부터 겨울방학 중 실시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논의 후 손석련 감사, 김점동 이사, 사업부와 같이 실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218차 이사회는 2012년 1월 8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로부터 2012년도 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고 ● 부의안건 제1항 제46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총회 개최 일시·장소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논의 후 2013년 1월 29일(화) 1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추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김점동 이사로부터 총회 시 협회에 기여한 외부 인사 초청과 속기인의 밤 행사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2년도 결산서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각 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안기철 감사로부터 결산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기철 감사로부터 가시적인 예산 절감 노력 필요 지적, 집행부 구성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주성 이사로부터 계획 대비 실적이 전무한 사업에 대한 지적, 검찰·법원·의회 등 속기사와의 교류사업 필요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예





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현 집행부에서 전년에 준하여 예산안을 작성하고 새 집행부가 이를 문광부와 협의하여 조정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사항으로는 인터스테노에서 2016년 중앙위원회 한국 개최에 관한 의향 타진이 있었다는 이사장의 보고가 있는 후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팀장으로 조영기 회원을 위촉하였습니다. 신임 회장단 추대와 차기 집행부 구성에 대해 논의 후, 현 이사장이 이사들과 협의하여 신임 이사장 추대 후 새 집행부 구성을 총회 전까지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결과 보고

◆ 제20회 속기학술세미나가 안면도 리솜오션캐슬(충남 태안군 소재)에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186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김대현(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김주성(前 대한속기협회 국제부장, 참나무비전학교장) 강사의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2012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2012년 9월 26일~10월 3일)에 본 협회에서는 이승철, 김학순, 정명순, 정순화, 서광식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꾸준히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48호 속기계(2012년도판) 발송과 소식지 제21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 대한속기협회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 등 18개 컴퓨터속기학원에서 12월 4일부터 28일까지 총 4주 동안 속기 무료강습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인원은 120명이었습니다.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20회 전국속기경기대회를 6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경기대회 리얼타임 방식으로 1분에 180자부터 320자까지 8분간 속기 후 수정시간 없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총 31명이 참가하였으며 수상자는 백종인, 정현중, 양태영 씨가 선발되었습니다.

회원동정

◇ 승진

손재욱(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과장→부이사관(임용예정)

김란희(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서기관→과장(임용예정)

정명순(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서기관(임용예정)

오경애·한기수·이동준(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속기사무관

◇ 입사

김진주·박우찬·예산해(국회사무처)(2013.01.21.)

◇ 인터스테노

이경식(국회사무처) / 중앙위원회 위원

손석련(주)한국스테노 / 교육위원회 위원

◇ 퇴직

최예숙(국회사무처)(2012.06.30)

김은숙·안순희(국회사무처)(2012.12.31.)

◇ 교육훈련 및 파견

권영찬(국회사무처)

통일연구원(2012.02.03~2013.02.02)

유희연(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2012.02.03~2013.02.02)

정란(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2.02.03~2014.02.02)

손숙자(국회사무처)

국외대학원(2012.02.20~2014.08.19)



공지사항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 회비납부 : 301-0052-3315-71 농협중앙회국회지점 이경진

연 락 처

총 무 부 02) 788-2373 백순정(총무부장)

02) 788-2373 이경진(재정부장)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회 원 부 02)788-2376 고영린(회원부장)

홍 보 부 02)788-2373 박정현(홍보부장)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steno.or.kr입니다.

자주자주 들러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세요.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49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박정현(☎ 02-788-2373)에게 연락 주세요.